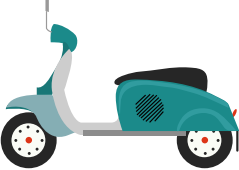


현재를 빛나게하는 행복 안전운전

이륜차

안  전

가이드

고령자용

현재를 빛나게하는 행복 안전운전

이론차 안 전 가이드

고령자용

Contents

01. 이륜자동차와 고령자

- 이륜자동차의 편리함
- 운전자로서의 고령자의 신체 변화

02.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와 차량 운행 특성

-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 특성

03.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안전운전 방법

- 교통사고 원인
-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안전운전 방법

04.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상황'

- 이상기후 시 안전운전 방법
- 노면상태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

05. 이륜자동차 안전 가이드

- 안전장비의 착용
-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 이륜자동차 브레이크 사용

06.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 신호준수, 중앙선 침범, 통행 방법
- 이륜차를 이용을 위한 운전면허
- 교통사고 처리 방법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절차

01



이륜자동차와 고령자

이륜자동차의 편리함

이륜자동차는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이다.

편리한 이륜자동차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편리한 근거리 교통수단

일터를
오갈 때



장보러
갈 때



옆 동네
방문 시



편리한 만큼 안전하게 이용하고 계시나요?

이륜자동차를 주로 이용 하는 이유를 나누어 보자



이륜자동차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 이륜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보호장구를 꼭 착용한다.
-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있다.
-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있다.
- 주변 교통상황을 이해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운전자로서의 고령자의 신체 변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경험을 통한 지혜로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

지혜로워 지는 것



젊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나를 챙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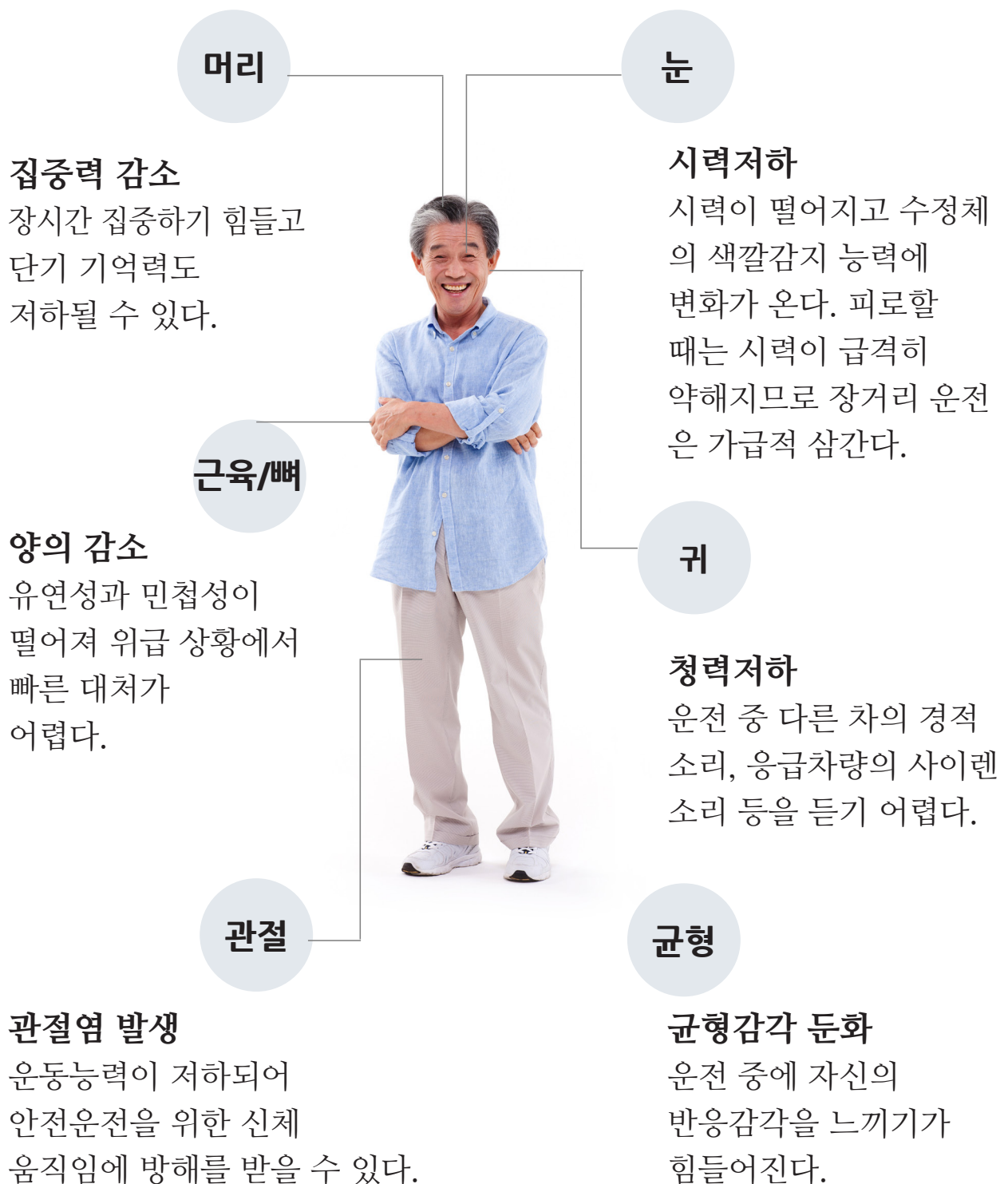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몸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변화를 늦추거나 보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신체 변화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신체변화 Check list

질문	전혀 그렇지않다	종종 그렇다	자주 그렇다
 큰 글씨도 돋보기 없이는 보기 어려워 졌다.			
 전화 통화 또는 TV를 볼 때 소리가 잘 안 들려 소리를 키운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생각 하여 대처하기가 어렵다.			
 물건이 떨어질 때 빠르게 잡아 챌 수 있는 순발력이 줄어들었다.			
 오래 걷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저러온다.			
 균형감각이 떨어지면서 쉽게 넘어진다.			

운전자로서의 고령자의 신체 변화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



의약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일부 처방의 경우 신체기능과 정신기능에 영향을 주어 운전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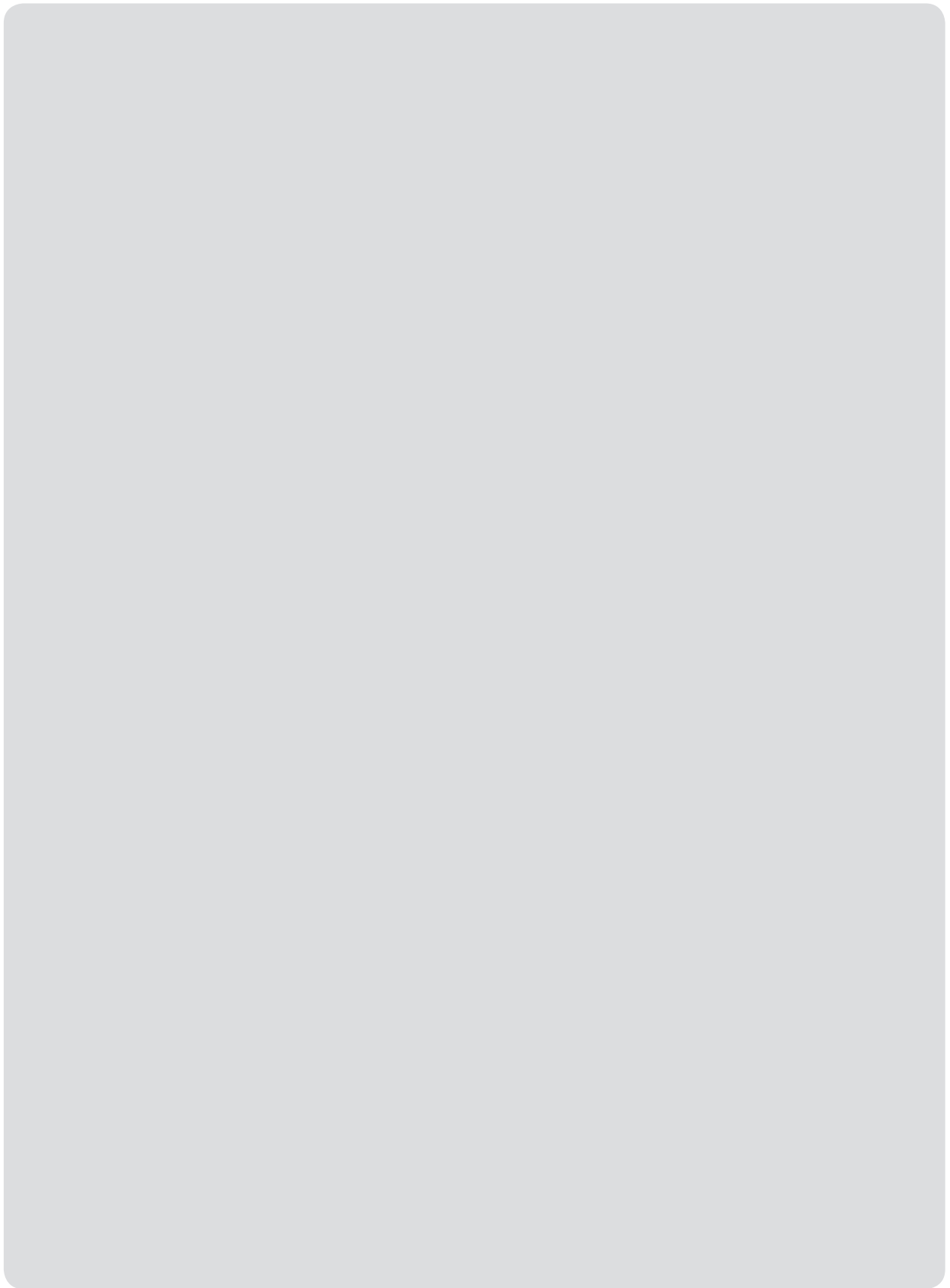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 의약품

- 비염 치료제, 종합감기약, 진통제 등
-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해 먹는 약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
- 고혈압, 당뇨, 치매 등 고령질환으로 먹는 약품

예방방법

- 졸음이나 어지럼증 같은 운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은 운전 전에 복용하지 않는다.
- 한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부작용 및 운전 영향 여부 등을 의사와 상담한다.

MEMO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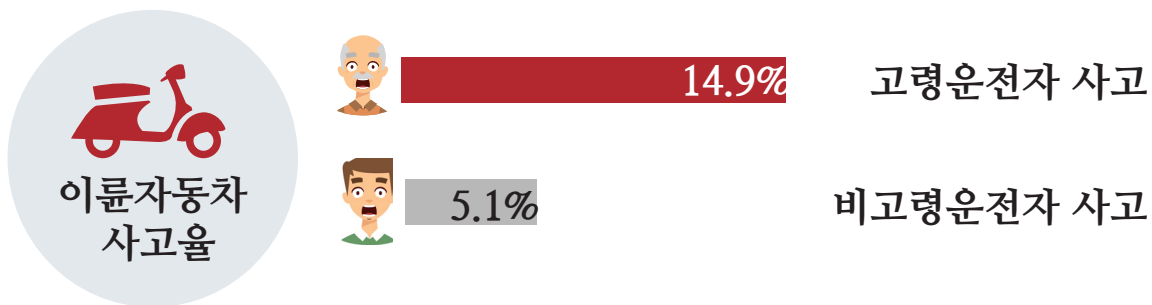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와
차량 운행 특성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차종 별 고령운전자 사고 발생률

자동차의 종류별 교통사고 중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비고령자에 비해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다.



※ 차종별 사고 중 고령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 이륜자동차 사고율

차종 별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구성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망사고는 이륜자동차(원동기 포함)가 가장 많다.

28.7%



승용차

33.6%



이륜자동차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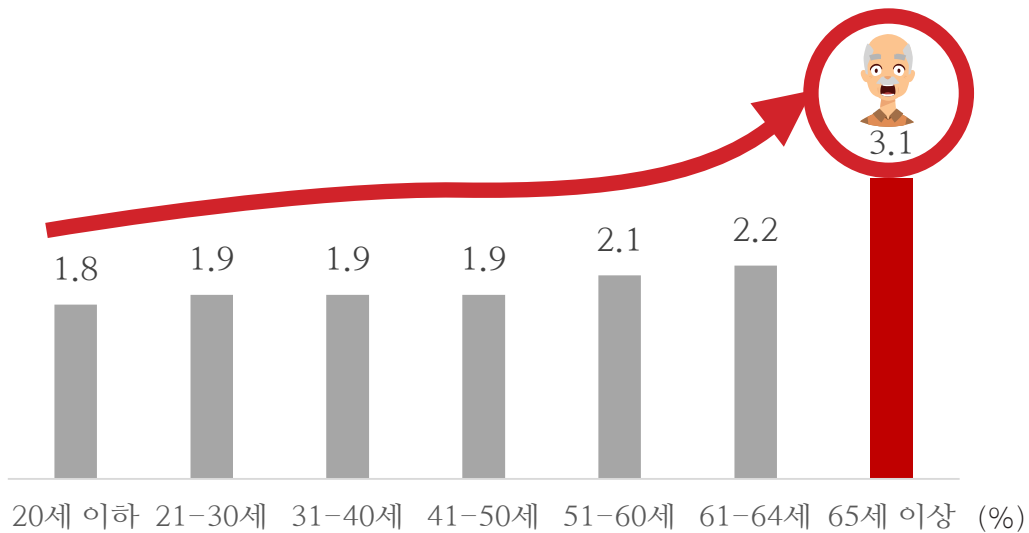


화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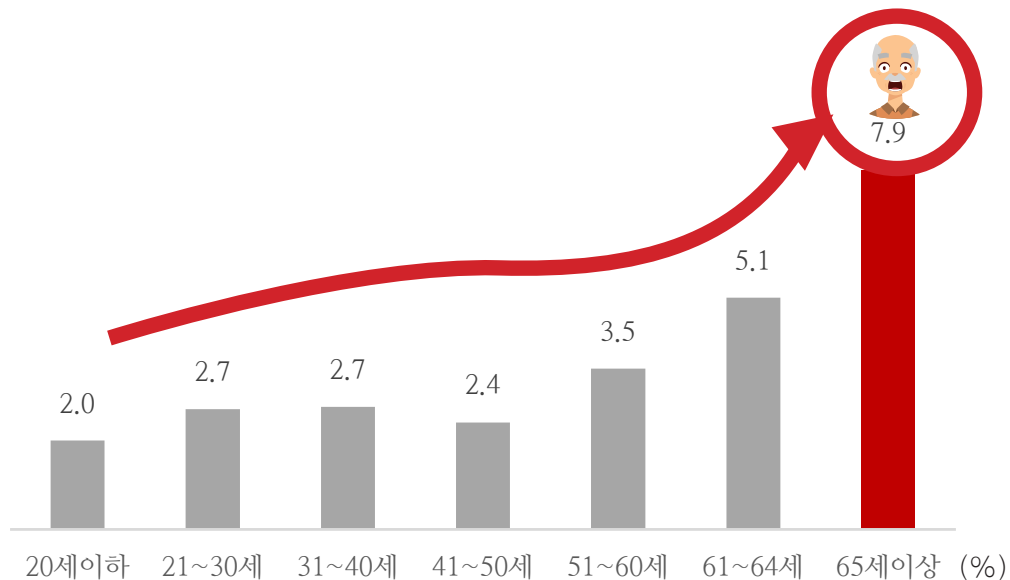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높아진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이륜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자동차 사고의 연령별 치사율 (이륜자동차 제외)



연령대별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 특성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이 이륜자동차가 가지는 위험 요소와 맞물려 더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신체적 특성과 함께 운행 특성을 이해하여 안전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자.

고령자 신체특성과 이륜자동차 운행특성

01. 균형감각 둔화: 균형유지가 어려운 이륜자동차



신체특성

균형감각이 떨어지면서 운전 중 자신의 반응감각을 느끼기 어려워진다.



이용특성

바퀴가 두 개로 되어있어 이륜자동차의 균형유지는 사륜자동차에 비해 어렵다.

02. 민첩성 감소: 자동차 시야에서 벗어나기 쉬운 이륜자동차



신체특성

근육의 양이 감소하면서 민첩성이 떨어지고 위급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어려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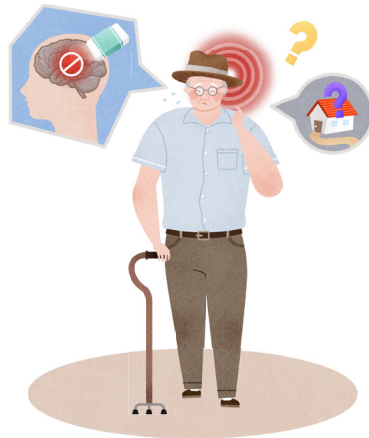
이용특성

차체가 작고, 잦은 차선 변경 등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보지 못할 수 있다.



갑작스런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는 신속하게 반응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는 민첩한 반응이 어려울 수 있다.

신체 변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인지적 특성'



신경체계의 저하로 반응시간이 길어짐

: 65세 이상의 경우 대체로 젊은 사람에 비해 반응속도가 30% 더 오래 걸림

이동 물체 감시 및 인지 반응 능력 저하

: 전방 직진 차량의 속도 및 거리 유추능력 기능 저하

정보처리 능력의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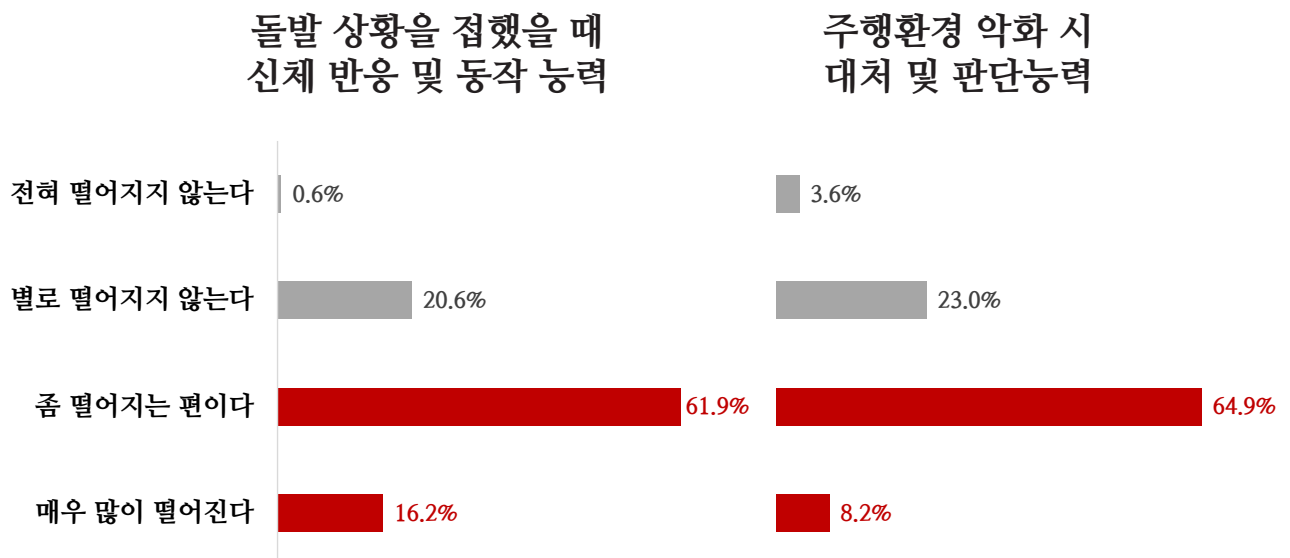
: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처리하는데 오래 걸림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 특성

고령운전자의 인지적 특성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

- 차량의 속도 및 거리를 유추하기 어려워 좌회전, 도로 합류시점에서 어려움
- 갑작스런 위험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떨어짐
- 교차로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운전이 어려움

고령운전자의 상황별 신체반응 및 동작능력



출처: 교통문화 운동본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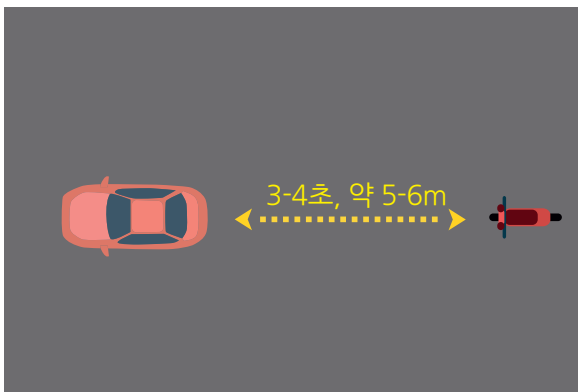
안전하게 이륜 자동차 타기

잘 보이는 위치 선정 후 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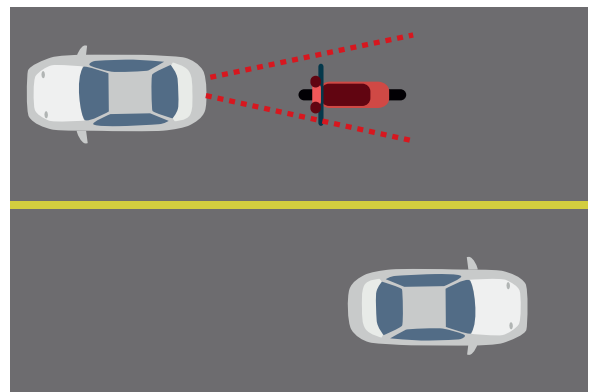
항상 자동차 운전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각하며 운전해야 한다.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서로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

〈앞 차와 간격 유지〉



〈사륜차의 사각지대 주의〉



전 후 빈 공간을 확보하고, 앞차와의 간격은 5-6m (60km/h 기준) 정도를 유지한다.

고령자의 신체특성에 따른 이륜자동차 운행 특성

시력과 청력의 저하



신체특성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며, 청력이 저하되어 도로 환경 감지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용특성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받아 들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고의 경우 도로 환경은 해가 뜨지 않은 새벽으로 어두웠다.
무엇이 고령운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신체변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특성 '시력저하'



정지시력의 감소

: 65세 이상부터는 30대 시력에 비해 80%수준

동체시력의 약화

: 안구운동 조절 능력 감퇴로 급격한 감소

시야감소

: 젊은 사람들은 170° , 50대가 되면 140° 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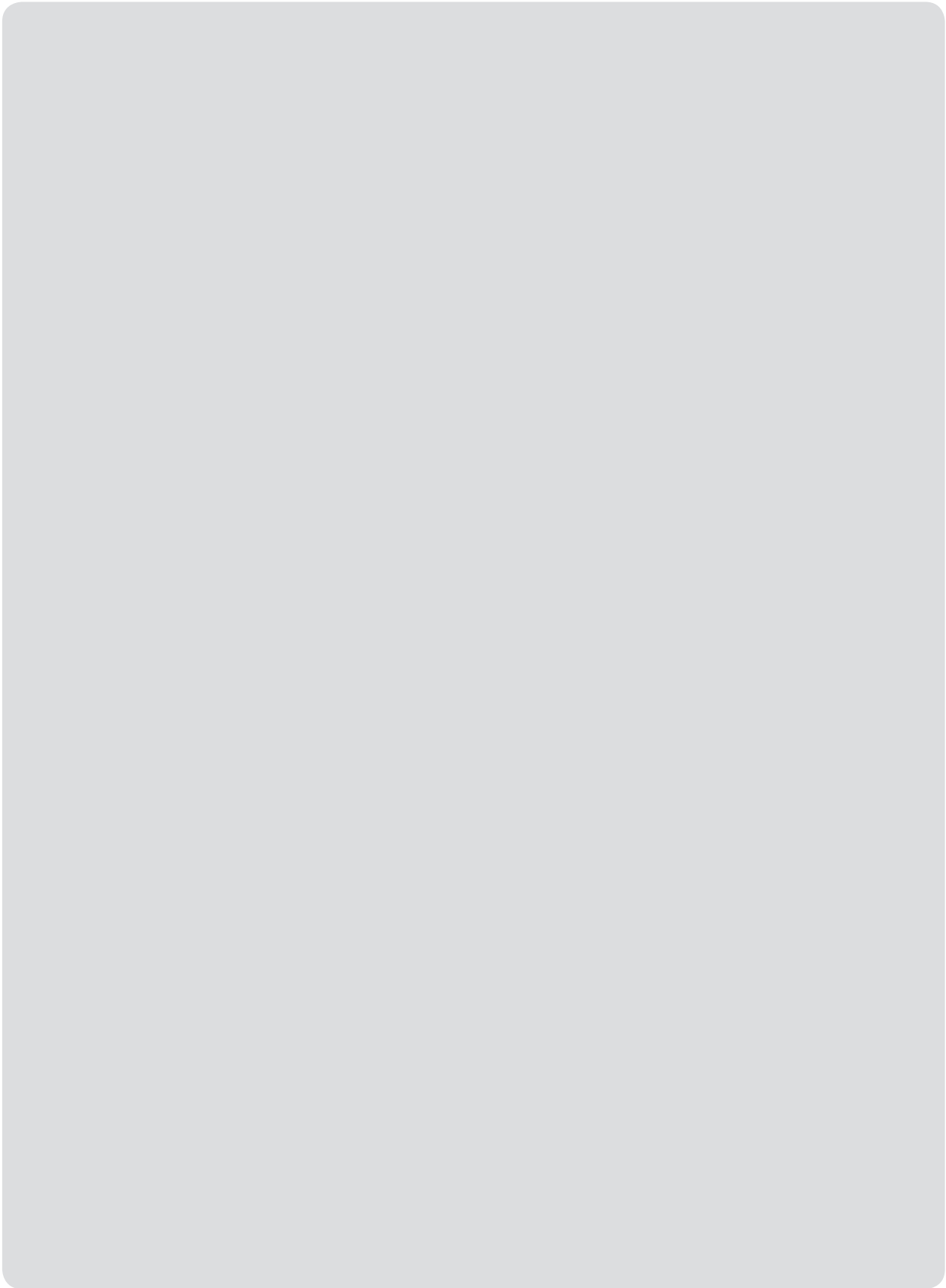
야간시력감소

섬광에 대한 민감도 증가

시력저하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운전상황에서의 어려움

- 해질녘 및 야간과 같이 어두워진 상황에서 운전이 어려워짐
- 도로표지판을 빠르게 읽거나 내용을 해석하기 어려움

MEMO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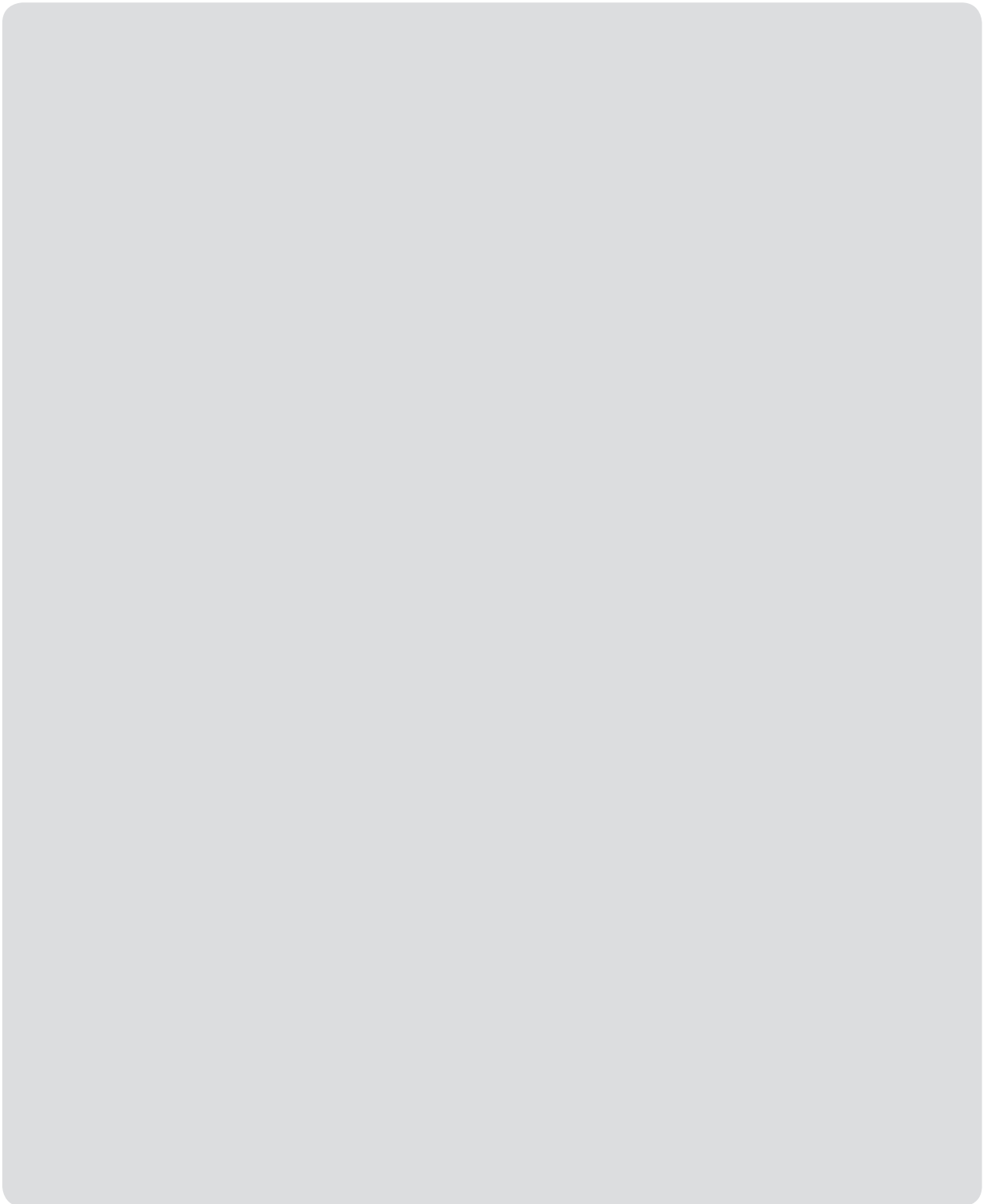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안전운전 방법

교통사고 원인

교통사고는 왜 일어날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를 적어봅시다.



교통사고의 원인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운전자 및 보행자), 차량적 요인(차량결함), 도로환경적 요인(도로구조 및 안전시설과 환경)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인적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차량적 요인



인적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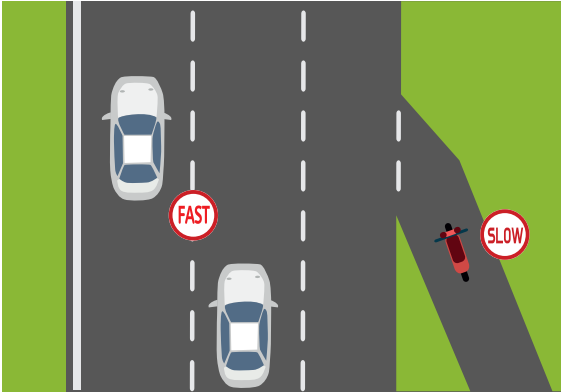
잠깐 ! 300:29:1 하인리히의 법칙을 아시나요?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들의 통계조사를 통해 1회의 대형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이전에 29회의 소형사고가 날 뻔한 경험을 했으며 소형사고가 날 뻔한 사람은 전에 300번의 사고 징후가 있다고 밝힘

잘못된 운전습관과 지식은
사고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음

도로 합류 지점에서의 교통사고

신할아버지의 합류지점 충돌사고



누가: 70세 신씨 할아버지

어디에서: 일터로 이동하던 큰 도로 합류지점

어떻게: 큰 도로 차량의 주행속도를 잘못
판단하고 무리한 진입 시도 중
사고 발생

위험상황

소도로에서 큰도로로 진입하며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면 적어보자.

그 때의 상황은?

나의 대처는?

왜 위험할까?

- 진입하려는 차량의 주행차의 속도를 느리게 판단 할 수 있음
- 선진입 차량이 진입하려는 차량을 인지 하지 못할 수도 있음

안전운전 방법



01. 우선권의 존중

소도로에서 주 주행 차로를 진입 할 때에는 주도로 주행 차량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무리한 진입은 안 된다.

02. 명확한 진출입 의사 표현

진입 전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본 차로의 진입의 의사 표시를 하여 다른 차량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3. 반드시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할 것

반드시 차량의 속도나 거리 등에 대한 안전을 충분히 확인 후 안전한 상황에서 진입한다.

4륜 오토바이 이용

최근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륜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사륜오토바이도 이륜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을 해야하며 운전 지식이나 안전장치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윤할머니의 사륜오토바이 추락 사고



누가 : 거동이 불편하여 사륜오토바이를 이용하는 73세 윤씨 할머니

어디에서 : 커브길도로

어떻게: 빠르게 지나가는 대형차에 놀라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다 논으로 추락

윤 할머니는 왜?

- ☒ 위험한 순간에 대처하는 순발력 저하
- ☒ 노화로 인한 균형감각 저하
- ☒ 위험 예측능력 저하

사륜오토바이를 이용 경험이 있다면 적어보자.

사고 위험 또는 사고 경험

안전운전 방법

01.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감속 운전

- 차량에 비해 폭이 좁기 때문에 기울기 변화에 민감
- 코너를 돌 때 원심력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큼
- 생각보다 회전반경이 커서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도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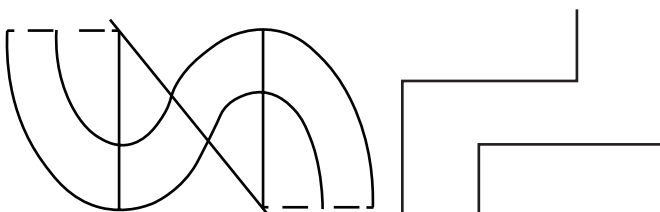
02.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

- 안전벨트, 에어백 등 운전자 보호장치 전무
- 외부로 노출된 신체가 보호되도록 안전장비 착용
- 헬멧, 팔꿈치 보호대, 글러브, 무릎보호대, 부츠까지 꼼꼼히 챙겨야 함

03. 일명 사발이 운전도 운전면허는 필요하다

- 다륜형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위한 면허취득이라면 다륜형 원동기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조건면허)를 취득하면 된다.
- 시험은 이용하고자 하는 다륜형 차량으로 치뤄지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시험코스〉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이할아버지의 음주운전 사고



누가 : 81세 이씨 할아버지

어디에서 : 읍내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도로

어떻게 : 지인의 가게에서 음주 후 길 가장자리 보행자 충돌
보행자 혈관성 치매 판정

이 할아버지는 왜?

- ☒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부족
- ☒ 자신의 신체능력에 대한 과신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씨는 왜 음주운전을 하였을까?

위 사고 사례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음주운전의 법적 요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이때 자동차 등은 원동기능을 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한다.

이륜자동차도 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다.

음주운전 왜 위험한가

- 주의력 판단력 운동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로,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 음주로 인한 잘못된 운전 조작이나 조작 생략 등으로 사고가 발생되기도 한다.
- 음주를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야간 대향차의 전조등으로 인한 현혹현상에서 시력 회복이 늦어진다.
- 대상의 움직임과 상관 없이 주·정차된 차량이나, 도로의 정지물체, 운행 중 다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륜자동차 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 법규

형사처벌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및 2회	0.05%~0.1% 미만	6개월 이하/300만원 이하
	0.1~0.2% 미만	1년 이하/ 300만~500만원 이하
	0.2% 이상	1~3년 이하/ 500만~1,000만원 이하
3회 이상	1~3년 이하/ 500만 ~ 1,000만원 이하	
측정거부	1~3년 이하/ 500만 ~ 1,000만원 이하	

행정처분

위반횟수	처벌기준
0.05~0.10% 미만	별점 100점 (100일 정지) ※ 대인사고 시 면허취소 (면허취득 제한기간 1년)
0.1% 이상	면허취소 (면허취득 제한기간 1년)
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음주운전 3회 이상	면허취소 (면허취득 제한기간 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 이상	면허취소 (면허취득 제한기간 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취소 (면허취득 제한기간 5년)

04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위험상황'

이상기후 시 안전운전 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비나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다.

비, 눈, 안개로 인한 교통환경은 운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주행 중 이상기후로 인한 위험 또는 사고 경험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보자.

위험상황

이상기후 비, 눈, 안개 등으로 위험 상황이나 사고경험을 생각해보자.

그 때의 상황은?

나의 대처는?

왜 위험할까?



첫째, 시야확보의 어려움
둘째, 미끄러운 노면의 저항이 떨어져
제동거리가 길어짐

안전운전 방법

01. 빗길에서 무리한 차로 변경은 위험하다.

무리한 차로 변경은 다른 차량이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비가 온다면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아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02. 주행 시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야 한다.

자신의 주행상황을 다른 운전자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한 사고 예방 방법이다.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은 자신을 알리는 운전 방법 중 하나이다.

여기서 잠깐! 퀴즈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상기후 시 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얼마나 줄여야 할까?

- 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을 때, 눈이 20mm 미만 쌓였을 때 : ()
- ② 노면이 얼어 붙은 때,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 ()

이상기후 시 안전운전 방법

안전운전 방법

03. 이상기후 시 감속운전은 필수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 브레이크를 작동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정지할 때 까지 진행하는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진다. 속도가 높아지면 제동거리는 더 길어진다.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두개의 바퀴로 운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브레이크 조작으로 더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감속운전은 필수이다.

04. 이륜자동차도 타이어 점검

마모된 타이어는 빗길과 눈길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타이어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일정 수준 이상 마모되었을 때에는 교체해 주어야 한다.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인해 주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안전운전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노면상태에 따른 위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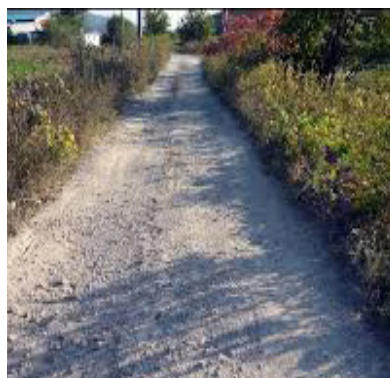
모래가 많은 길



도로의 유실



진흙길



자갈길



주행중 맨홀

노면상태에 따른 안전운전 방법

미끄러운 도로에 진입할 때,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와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어떻게 제동을 하고 정지할 수 있는지 브레이크 조작 방법을 알아보자.

안전운전 방법

급조작 및 과잉조작을 피하라!

노면이 미끄럽거나 고르지 못하여 마찰력이 낮을 때에는 브레이크 조작이 중요하다.

- 통과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차체를 기울이지 않는다.
- 통과 중에는 급제동, 급가속을 피한다.
- 스톱을 그림으로 속도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통과한다.

이것만은 하지 말자!

05



이륜자동차
안전 가이드

안전장비의 착용

이륜자동차 사고 시 주된 신체 손상부위는 머리카 목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머리 손상은 가장 치명적이다. 이 때 안전모의 착용은 머리카 목 부분의 부상을 예방해주거나 심각도를 떨어줄 수 있다.

안전모에 대한 오해?!

01. 어떤 종류의 헬멧이라도 쓰기만 하면 된다?

헬멧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헬멧을 선택해야 한다.



명칭	풀페이스헬멧	하프페이스헬멧	오픈페이스헬멧
보호부위	얼굴전체	턱을 제외한 얼굴	머리부위만
보호성능	가장안전	보통안전	가장위험

02. 헬멧을 얹기만 해도 괜찮다?!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를 다치면 10%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안전모를 쓰긴 썼지만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아 벗겨져서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도 똑같이 10%의 과실이 인정된다.

턱끈을 매지 않는 것은 헬멧을 쓰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는 것!

출처: 01. 초보자를 위한 모터사이클 입문, 현종화, 미래라이프, 2016.

02. 한문철변호사의 블랙박스 인터넷 영상, <http://www.geotubepk.com/HNc1KLCuclM/.html>

안전모 선택 및 착용방법

안전모 착용



- 이륜차 사고 시 주된 신체 손상부위는 머리카나 부분이 많다. 머리 손상은 가장 치명적이다.
- 이때 안전모의 착용은 머리카나 목 부분의 부상을 예방해 주거나 심각도를 떨어준다.
- 안전모는 머리에 꼭 맞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 인가된 디자인의 안전모를 선택한다.
- 턱 끈을 확실하게 매고 올바르게 착용한다.
- 사용기간이 4~5년이 되면 교체를 한다.
내구성이 떨어지면 충돌 시 보호받을 가능성이 떨어진다.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뒷자석에 태우면 안 된다.
- 야간 운전 시는 안전모에 반사재를 붙여야 한다.
- 청력과 시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점검하기



01. 브레이크의 여유와 제동력은 충분한가?
02. 차륜이 덜컹거리거나 휘지는 않았는가?
03.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가?
04. 체인이 너무 느슨하거나 꼭 감기지는 않았는가?
05. 주유는 적당한가?
06. 핸들이 무겁지 아니한가?
07. 흔들리지는 않는가?
08. 등화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09. 후사경은 잘 조정되어 있는가?
10. 머플러(프로텍터)는 완전히 부착되어 있는가?
11. 파손된 부분은 없는가?

이륜자동차 브레이크 사용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안전한 브레이크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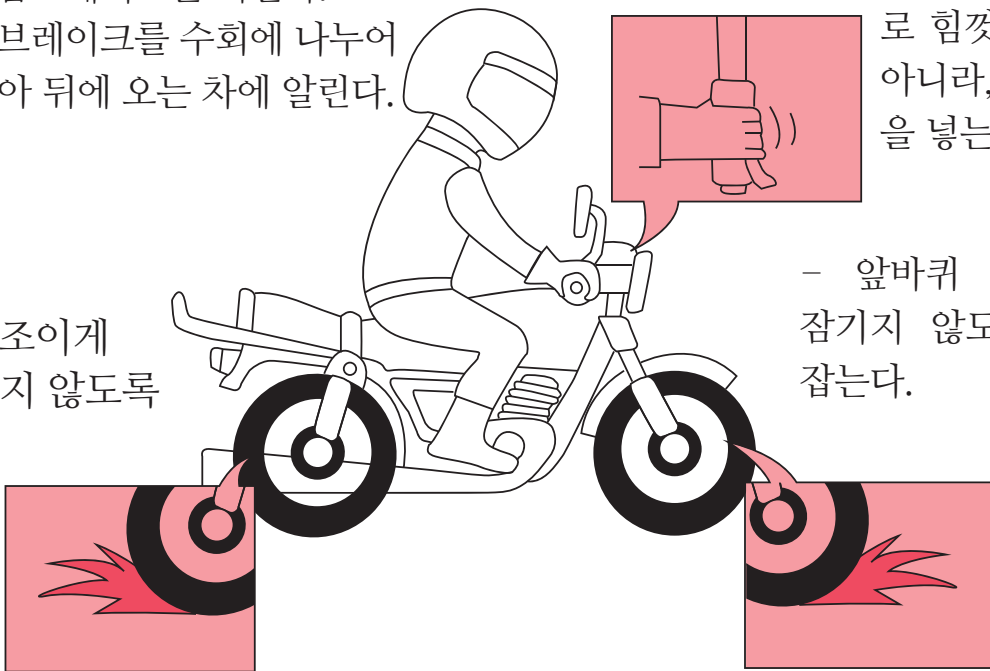
안전운전을 위한 브레이크 사용법

- 차를 똑바로 정지시킨다.
- 급브레이크는 피한다.
- 브레이크를 수회에 나누어 밟아 뒤에 오는 차에 알린다.

- 앞바퀴 브레이크 (오른손) 순간적으로 힘껏 잡는 것이 아니라, 지긋이 힘을 넣는 느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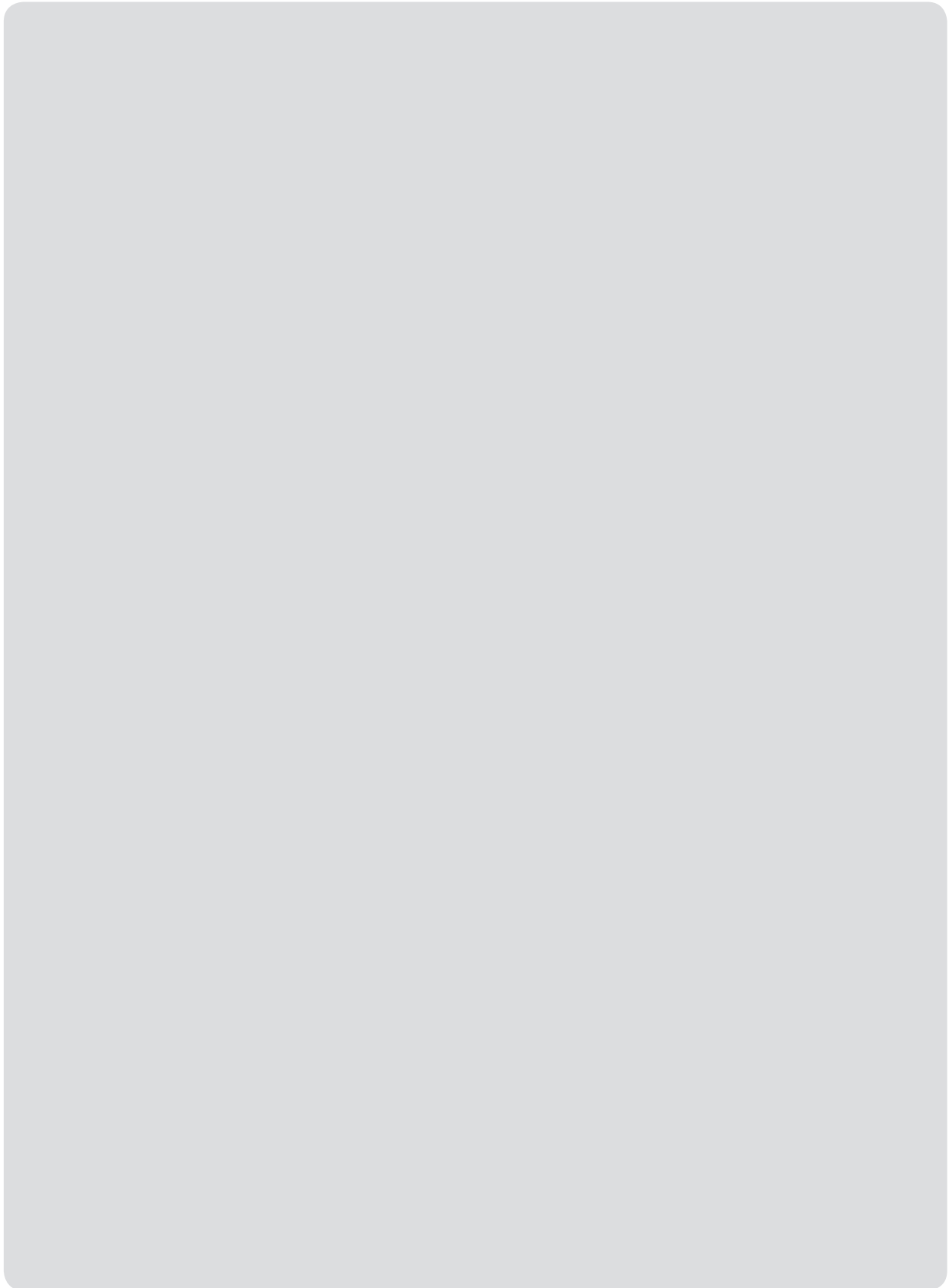
- 조이게 되지 않도록

- 앞바퀴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도록 지긋이 잡는다.



-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때는 차체를 수직으로 유지하고 핸들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걸면서 전·후륜의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시킨다.
- 이때 승차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지 않으면 앞으로 쏠리기 쉽다.
- 브레이크를 걸면 차륜의 회전이 멈추어 옆으로 미끄러진다.
- 브레이크는 몇 번에 나누어서 사용한다.

MEMO



06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신호준수

최할아버지의 신호위반 사고



누가: 77세 최씨 할아버지

어디에서: 새벽기도를 가던 중 교회 앞 사거리

어떻게: 좌회전 시도 중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승합차와 충돌

최 할아버지는 왜?

- ☒ 시력저하로 시야확보 어려움
- ☒ 직진하는 승합차의 속도감지 오류
- ☒ 좌회전 가능여부 판단능력 저하

함께 생각해 봅시다

도로환경적 측면?



승용차 운전자 측면?



방어운전 방법?

신호의 의미

신 호 별	신호의 뜻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했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등화 의 점멸	1.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신호준수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 방식이다.

적색신호 시 좌회전 진입은 신호위반

비보호 겸용 좌회전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신호 좌회전 방식과 비보호 좌회전 방식을 같이 사용 하는 것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에 맞춰 좌회전
직진 신호라도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비보호 좌회전 가능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가 있다면 좌회전은 안 됨



안전표지



201
통행금지



202
자동차통행금지



203
화물차통행금지



204
승합자동차통행금지



205
이륜자동차및
원동기장치자
전거통행금지



206
자동차이륜자
동차통행금지



207
경운기.트랙터및
손수레통행금지



210
자전거통행금지



211
진입금지



227
일시정지

중앙선 침범

교통법규 위반 사례

박씨 할아버지의 중앙선 침범사고



74세의 이륜자동차 운전자 박00씨는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일을 보기 위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고 당일 2013.11.16. 1시 35분

그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사고로 이어졌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운전자 준수사항?



중앙선 침범이 위험한 이유

- 사고 시 정면 충돌 형태의 사고로 치명적인 사고의 결과를 야기한다.
- 특히 커브길에서 중앙선 침범은 반대방향의 차량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의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고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주며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앙선 이해하기



1) 실선



2) 실선(복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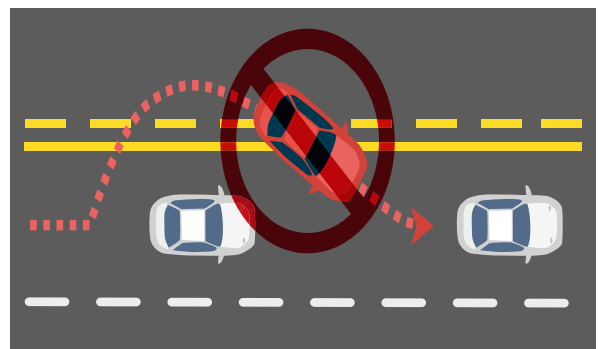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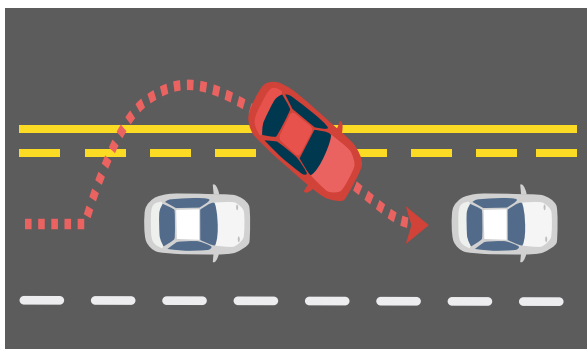
3) 점선



4) 실선과점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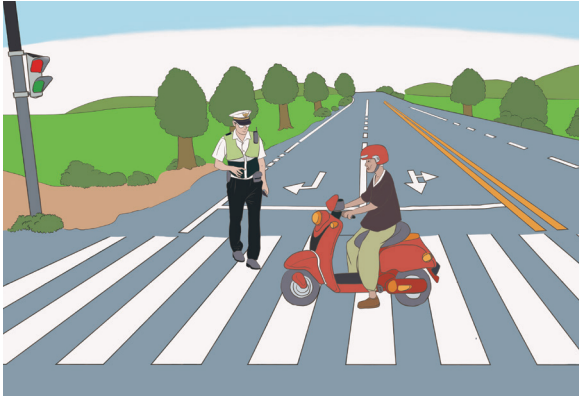
중앙선의 의미

- 황색 실선 : 차마가 넘어갈 수 없다.
- 황색 점선 :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와야 한다.
- 황색 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운전자 중심으로 안쪽에 점선이 있는 경우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 갔다가 돌아 올 수 있으나, 운전자 중심 안쪽이 실선이면 넘어갈 수 없다.



통행방법

이륜자동차 횡단보도, 보도통행 금지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횡단하는 횡단보도 및 보도는 통행이 절대로 안 되며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차로 이용

차로 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구분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1차로	승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
2차로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3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이륜자동차 이용을 위한 운전면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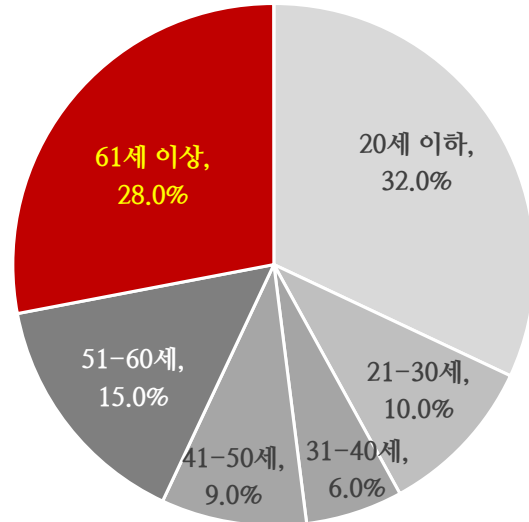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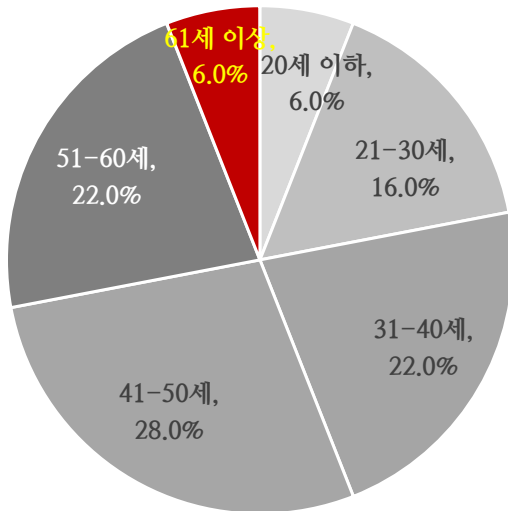
운전자의 필수 자격 “운전면허증”

작은 이동수단이라도 원동기가 장착된 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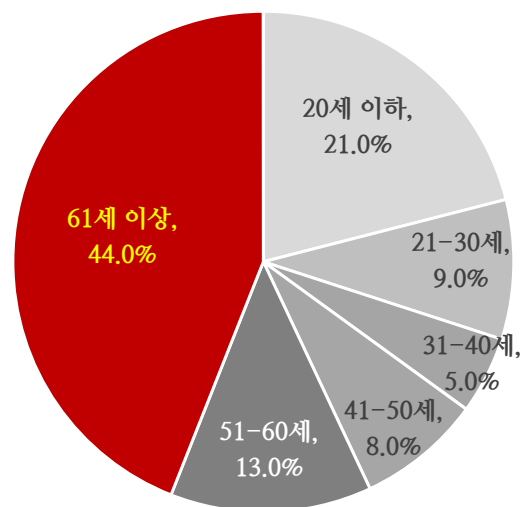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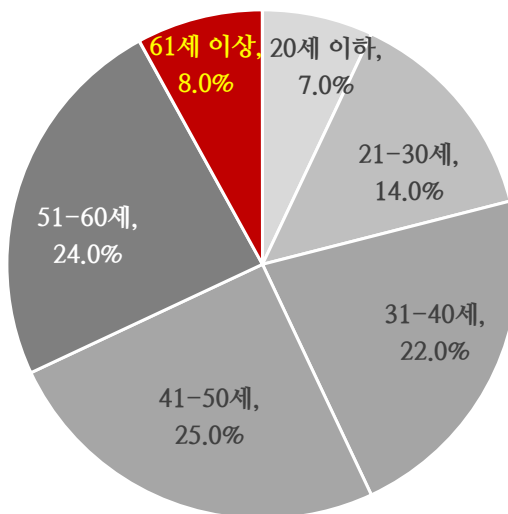
운전하고자 하는 차종	요구되는 운전 면허
소형이륜자동차 (125cc 이하)  	-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 면허 등 어떤 운전면허라도 운전 가능 ※ 단, 2종 자동변속기 면허는 수동변속기 이륜자동차 운전 불가
다륜형 	- 원동기장치자전거 다륜형 면허 - 보통 면허 등 어떤 운전 면허라도 운전 가능
전체 이륜차 (모든 배기량) 	- 제 2종 소형면허 ※ 다른 운전면허로는 운전 불가

고령운전자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특성

일반 자동차 무면허 사고에 비해 이륜자동차 무면허 사고는 운전자 중 61세 이상이 많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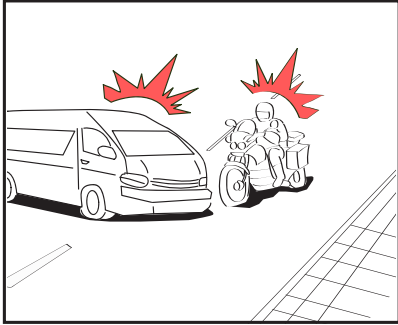
이륜자동차 무면허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한 61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처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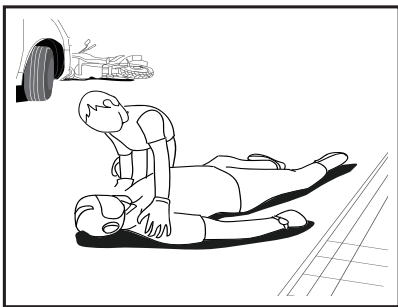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01. 즉시 정차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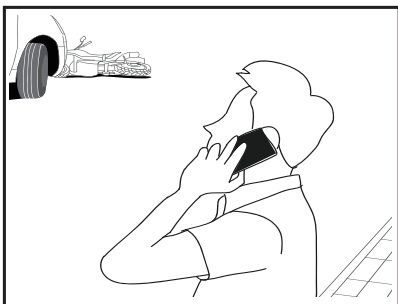
-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 피해차량이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를 확인하세요.

02. 부상자 구호가 우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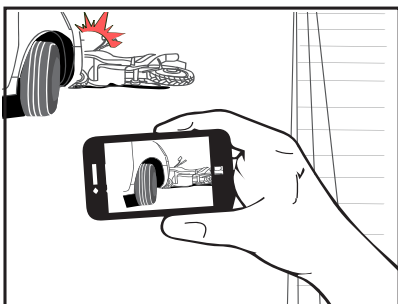
- 부상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부상이 심한 경우 주변 사람에게 신고를 요청하세요.
- 상대방이 많이 다쳤을 경우는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후송하세요.

03. 필요한 긴급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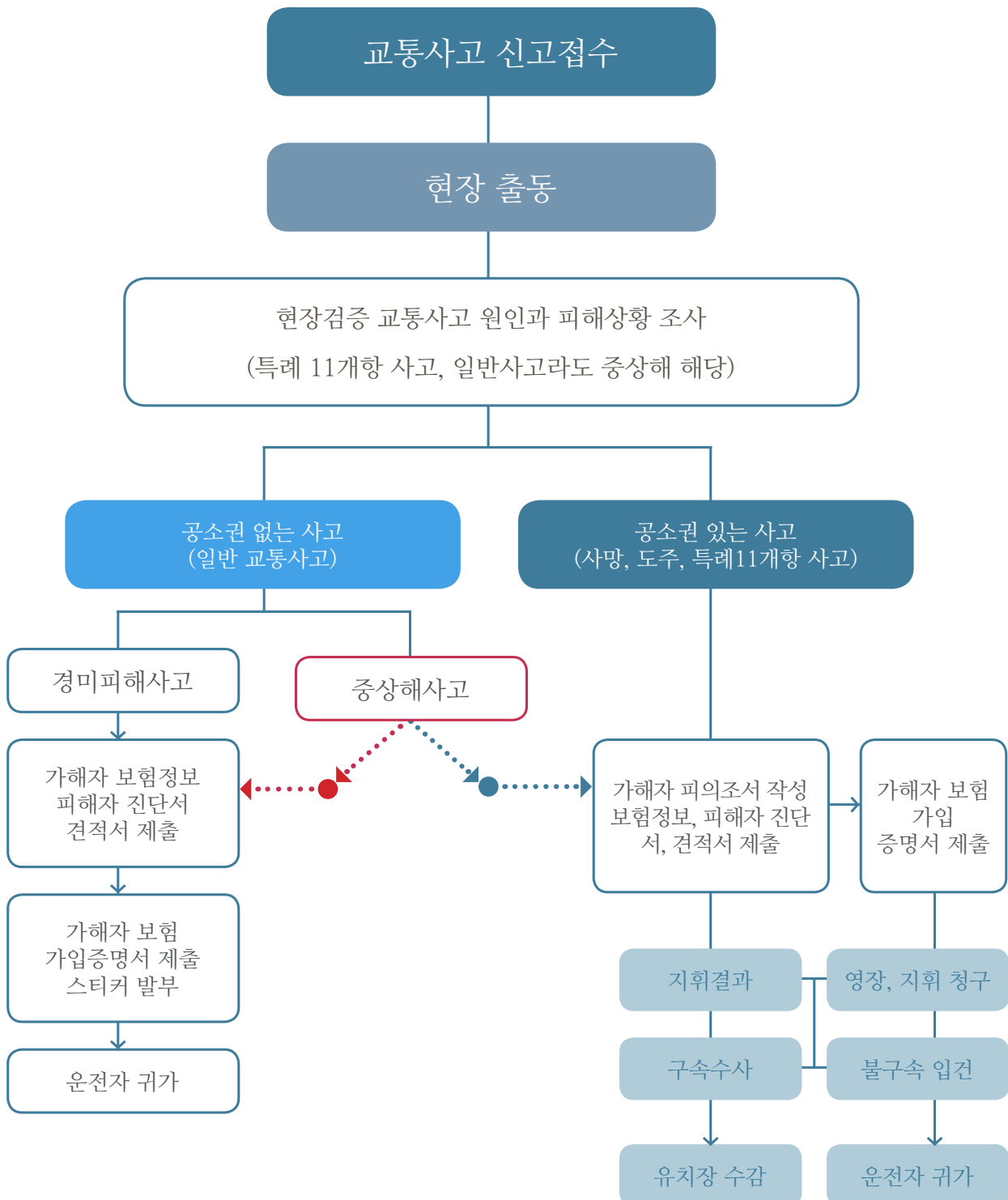
-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에는 꼭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04. 정황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세요.
-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사고 장소, 위치 등을 도로 상에 표시하세요.
-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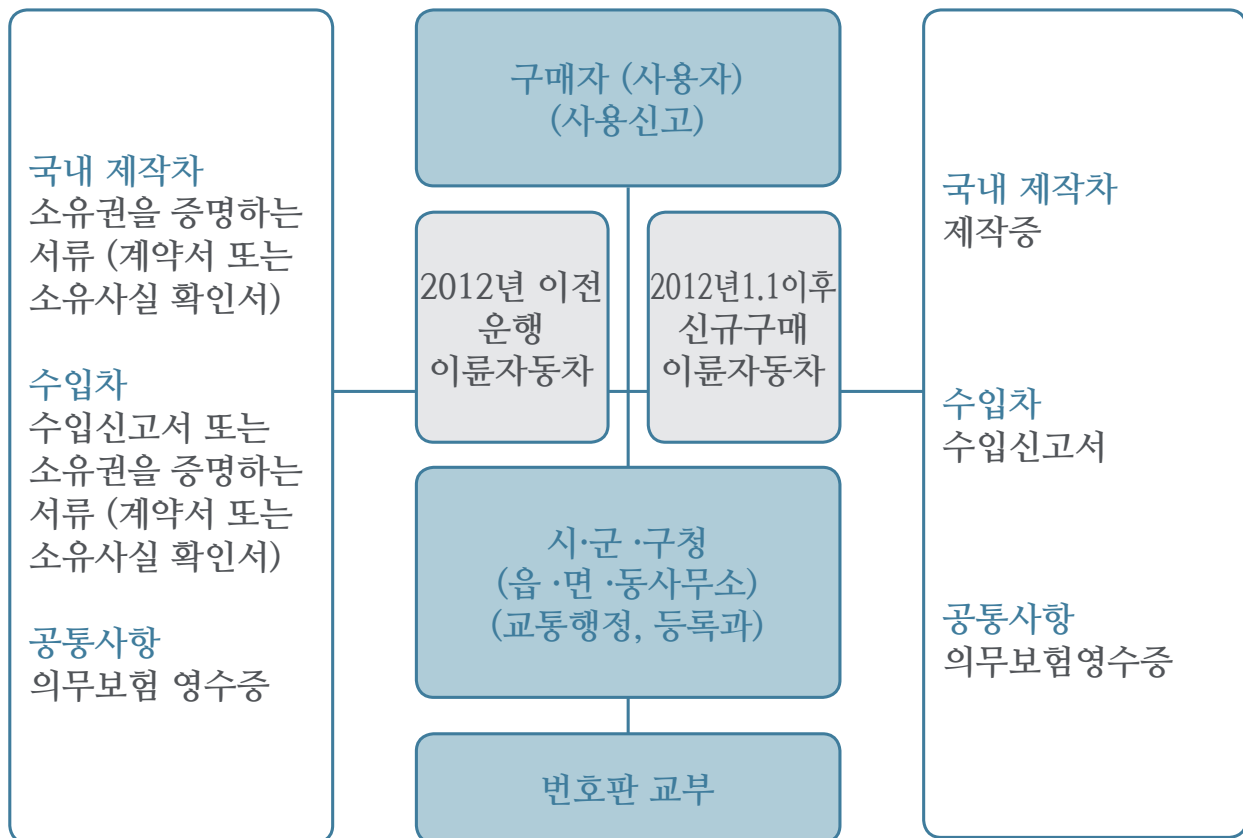
교통사고 처리 절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절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절차

신고절차



구비서류

2012년 이전 운행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함)를 통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확인

- ① 신청인: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② 신청하는 곳: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 ③ 구비서류:
 - 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 소유사실 확인서)
 - 나. 의무보험 영수증

사용신고 신청

- ① 신청인: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② 신청하는 곳: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③ 구비서류:
 -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신고관청에 비치)
 - 나. 소유사실 확인서 1부
(신고관청에 비치)
 - 다. 의무보험 영수증

사용신고 신청

- 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수령
- ②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

2012년 1.1 이후 신규 구매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함)를 통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소유권확인

- ① 신청인: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② 신청하는 곳: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③ 구비서류:
 -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나. 이륜자동차 제작증 또는 수입면장 등

사용신고 신청

- 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수령
- ②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수령 및 부착

현재를 빛나게하는 행복 안전운전

이론차 안 전 가이드

